

제주신화월드, 봄맞이 종합세트 선물

유채꽃밭·무료콘서트·가성비 바우처까지 '풍성'

규모 7500여m² 유채꽃밭서 여유롭게 인생샷 정승환·거미 등 18일부터 매주 토요일 공연 여행 목적 따라 맞춤 혜택 바우처 3가지 선택 정가 대비 최대 60%할인...객실·식사권 혜택



제주 서귀포의 복합 리조트 제주신화월드가 봄을 맞아 다양한 여행 콘텐츠로 본격적인 고객맞이에 나섰다.

관광업계의 본격적인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흐름에 맞춰 제주 특유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리조트 내 명소부터 봄날 정취를 담은 콘서트, 그리고 요즘 같은 고물가시대의 소비취향을 맞춘 가성비 바우처까지 다양하다.

우선 제주신화월드가 이번 봄시즌 리조트의 테마 콘텐츠로 방문객들에게 추천하는 곳은 신화가든이다. 제주신화월드 서머셋 클럽하우스 맞은편에 조성한 신화가든은 원래 사진작가들에게 예전부터 출사명소로 꼽히던 곳이다. 계절에 따라 유채꽃,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다양한 꽃들로 1년 내내 피어 있다.

이맘때 신화가든의 주인공은 유채꽃이다. 드넓게 펼쳐진 유채꽃밭과 빛나무, 영산홍, 산철쭉, 야개네 등 십여 종의 봄꽃과 꽃나무가 만개해 1년 중 가장 화려한 색감을 자랑한다. 특히 규모가 7500여m²로 넓어 많은 방문객이 몰려도 크게 방해 받지 않고 나만의 인생샷을 찍을 수 있다. 나 홀로 나무, 하얀 돛 형태의 로톤다, 오두막, 액자 조형물까지 다양한 포토존도 있다. 제주 서쪽에 위치한 늦은 오후부터는 유채꽃을 붉게 물들이는 일몰도 감상할 수 있다.



제주신화월드가 18일부터 매주 토요일 6주간 진행하는 스프링 브리즈 콘서트(위)와 신화가든. 사진제공 | 제주신화월드

봄날 정취를 한껏 무르익게 하는 무대도 진행한다. 제주신화월드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6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에 'JSW 스프링 브리즈 콘서트'를 개최한다. 무료로 진행하며 제주신화월드 신화테마파크 야외 센트럴 스테이지에서 열린다.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화테마파크의 야외 센트럴 스테이지는 봄꽃 향기를 맡으며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근거리에서 즐길 수 있다. 공연은 18일 유승은의 무대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정승환, 임정희, 선우정아, 거미, 린 등의 아티스트가 출연한다. 우천시에는 지붕이 있는 신화테마파크 내 메인스트리트 무대를 옮겨 열린다.

●풍성한 소비 체리슈머 위한 바우처도

3월 초 론칭한 '신화플러스'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면서 리조트에서 호강스를 하려는 방문객을 위한 온라인 연간 바우처다. 최근 집값 열기를 주춤하게 만드는 고물가시대에 가성비와 가심비를 중시하는 '스마트 소비'의 체리슈머와 제주 여행 마니아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이다. 정가 대비 최대 60% 할인하는 바우처와 더불어 객실 40%, 직영 식음업장 20%를 포함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제주여행의 목적이나 리조트에서 선호하는 호강스 형태에 따라 바우처를 J, S, W 등 세 가지로 나누어 그에 맞는 혜택을 구성했다.

미식가를 위한 J 타입은 식음 5만 원 식사권 4장과 디너 뷔페 1인 식사권 2장으로 구성된 식음업장을 두 번 이상 이용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좋다. 스마트 호강스를 위한 S 타입은 2명의 여행객이 사용하기 적합하다. 5만 원 식사권 5장을 비롯해 신화관 숙박권 2장, 랜딩 숙박권 2장으로 구성했다.

풍성한 혜택을 누리고 싶은 풀강스를 위한 W 타입은 3~5명 가족 단위 또는 그룹 여행객이 사용하기 적합한 상품이다. 5만 원 식사권 8장과 서머셋 스위트룸 2장, 신화관 패밀리 트윈룸 숙박권 2장의 바우처로 구성했다.

이외에 바우처를 구매하면 신화관과 랜딩관 객실 40% 할인, 제주신화월드 직영 식음업장 상시 20% 할인, 신화테마파크 자유이용권, 신화위터파크 입장권과 함께 제주도 주요 관광지 연간 최대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카드와 E-바우처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전용 상품인 신화플러스는 4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 가능하다. 이에 앞서 3월 말까지 대표번호(1670-1188)를 통해 전화 구매하면 유효기간을 1달 연장해 총 1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깜짝 얼리버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전자랜드, '모바일 스페셜 롯데카드' 프로모션

전자랜드가 31일까지 롯데카드와 손잡고 '전자랜드 모바일 스페셜 롯데카드' 프로모션을 연다. 해당 카드로 휴대폰 구매 시 금액대별 최대 7만 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특히 행사 모델 구매 시 10만 원의 추가 캐시백을 준다. 또 10만 원 이상을 정기 무이자 할부로 결제한 후, 36개월간 매월 30만 원 실적 충족 시 월 1만3000원씩 총 46만8000원을 캐시백해준다.



'실외자율주행로봇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 상호 KT AI 로봇사업단 단장(가운데)과 최중석 캠퍼링 대표(오른쪽), 김정환 캠퍼링아웃도어 대표. 사진제공 | KT

KT "실외자율주행로봇, 캠핑장서 만나오"

캠핑톡·캠핑아웃도어와 업무협약...로봇 사업 확대

KT가 실외자율주행 로봇 사업 확산에 나선다. KT는 캠퍼링, 캠핑아웃도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캠퍼링은 캠핑장 검색, 예약, 결제를 지원하는 캠핑장 예약 플랫폼 회사다. 전국 450여개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다.

캠핑아웃도어는 캠핑과 글램핑을 전문으로 기획하는 시공사로, 경상남도 진주에 대형 글램핑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KT 실외 자율주행로봇을 도입해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캠핑장 로봇 서비스 확산과 아웃도어 상용 환경에서 로봇 활용, KT 로봇 및 연계 서비스 보급에 대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사는 고객들에게 캠핑장 자율주행 배송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초의 실외 자율주행로봇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KT 로봇을 도입한 캠핑장을 플래그십스토어로 활용하고, 캠핑장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 개발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G마켓 온라인 장보기 '스마일프레시' 안착

G마켓이 지난해 선보인 SSG닷컴의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스마일프레시'가 식품 카테고리 성장을 견인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밝혔다. G마켓에 따르면 스마일프레시 도입 후 식품 카테고리 월평균 거래액과 주문량은 전년 대비 각각 16%, 12%씩 증가했다. 특히 채소(60%), 소고기(50%), 해산물·어패류(46%) 등 신선식품 거래 규모가 크게 늘면서 식품 카테고리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스마일프레시는 공산품 위주였던 G마켓에서 이마트의 검증된 신선식품, 생필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 빠른 배송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피부가 쏠리면서 생기는 '마찰화상' "깨끗한 물로 씻고 2차 감염 막아야"

마찰화상은 피부와 맞닿은 표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쏠리면서 마찰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을 타다가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 얼굴이나 팔, 다리 등에 마찰화상이 발생한다. 인조 잔디 위에서 축구를 하다 넘어지면 무릎이나 팔 등에 마찰화상이 생길 수 있다.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질 때도 마찰화상이 생기기 쉽다.

마찰화상은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마찰화상은 아스팔트 바닥 등 오염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처 부위와 이물질들을 깨끗한 물로 씻어 2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 이때 씻는 물은 미지근한 온도가 좋으며, 탈지면이나 거즈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알칼리성 비누도 사용해서 안 된다.

간단한 응급처치 뒤에는 살균 봉대나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감싸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마찰열로 인한 화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화상 상처를 판단하여 적절한 연고를 처방 받고 드레싱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치료 후에는 남은 화상 흉터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레이저 등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마찰화상은 일반적인 화상과 달리, 물리적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화상의 정도가 심할 수 있으며 다치는 표면이나 바닥이 깨끗하지 않아 추가 감염의 위험도 크다. 작은 마찰화상이라도 화상 전문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수원 화상병원 세술과과 이하균 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볼보 글로벌 임원들 총출동...올해 韓시장에 1110억 투자

중장기 계획 발표... 'EX90' 올해 말 국내 공개 "안전, 단순한 마케팅 아닌 회사의 핵심 목표"

볼보자동차 글로벌 CEO 짐 로완을 비롯한 총 7명의 글로벌 최고 경영진 전원이 아시아국가 중 가장 먼저 한국을 찾았다. 볼보의 글로벌 9위 시장으로 도약한 한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공적인 전동화 전환, 한국 시장 투자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적 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짐 로완 CEO는 "3점식 안전벨트를 비롯해 안전의 기준을 만들어 온 볼보자동차는 '안전'을 단순한 마케팅이나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출발점이자 핵심 목표로 생각한다"며 "한국 고객들의 높은 관심과 사랑에 화답하고자 안전과 전동화의 상징적 모델인 볼보 EX90을

올해 말에 한국에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90은 볼보자동차의 플래그십 순수 전기 SUV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5년 연속 1만대 클럽 달성 및 전년 대비 약 20% 상승한 1만7500대 판매를 올해 목표로 설정했다. 수입차 브랜드 최초로 300억 원을 투자해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개발한 '통합형 TMAP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업데이트, 순수 전기 플래그십 SUV '볼보 EX90' 공개 및 순수전기차 라인업 강화, 111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독자적인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브랜드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는 "성공적인 전동화 전환 계획에 맞춰 리차지 라인업 강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등 안전과 인간 중심이라는 볼보의 철학을 고객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이고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이종호 티맵 대표가 직접 참석



볼보자동차 최고경영책임자 비에른 뮐러, 최고경영책임자 하비에르 발레라, 최고경영자 짐 로완,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이사 이윤모(왼쪽부터)가 14일 열린 볼보 중장기 경영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순수 전기차 C40리차지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볼보자동차코리아

해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협업을 통해 한층 진보된 '통합형 TMAP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소개했다. 차량 내 결제 가능한 '인카 페이먼트', '웨이브' 시청 가능한 OTT 서비스와 뉴스, 카페, 미디어 스트리밍 등 다양한 앱 지원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원성범 기자 sereno@donga.com